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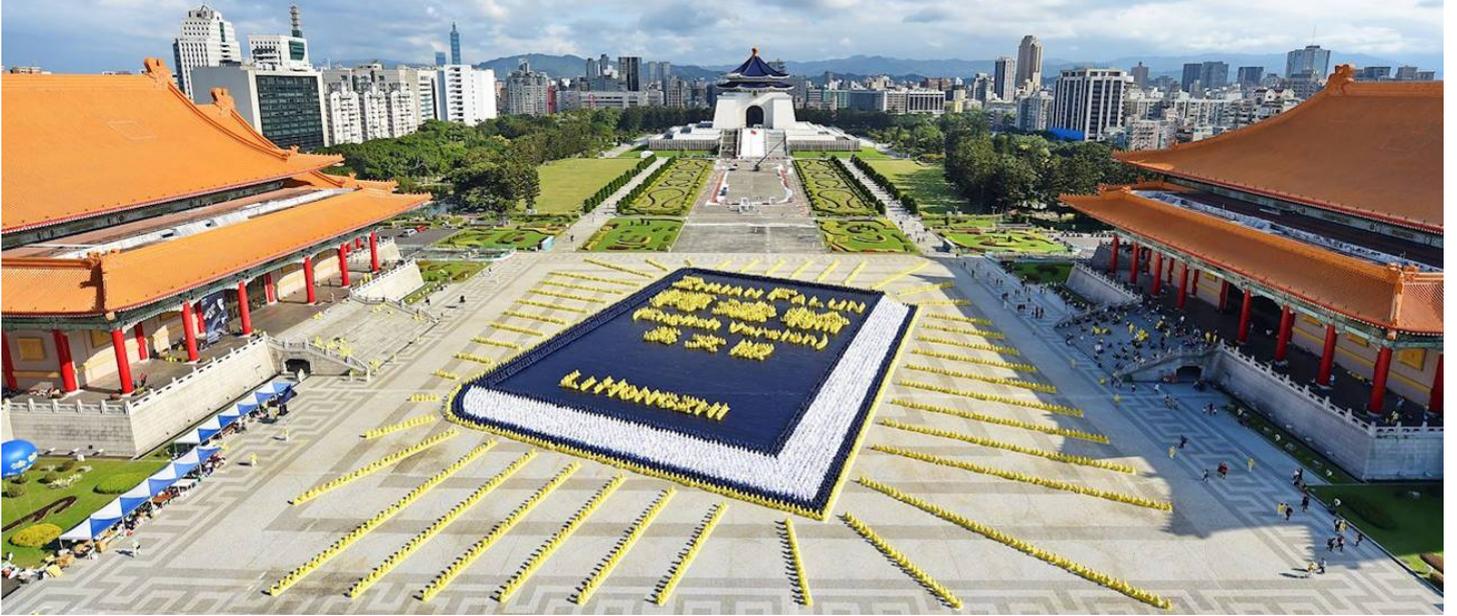
# 장백산천지

제 342 호

2018 년 12 월 23 일

일요일

## 타이완 파룬궁수련생의 대형 인각 활동에 중국 관광객이 감동하다



■ 파룬궁수련생이 배자한 영역본 ‘전법륜(轉法輪)’도형

[밍후이왕] 2018 년 11 월 24 일 파룬궁수련생 약 5,400 명은 타이완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심득교류회 개최 전에 타이베이(台北) 자유광장에서 대형 인각 및 단체 연공 활동을 진행했다.

올해 인각의 주제는 영역본(英譯本) ‘전법륜(轉法輪 파룬궁 주요 저서)’이다. 짙은 남색 책표지, 황금색 책명과 작가명, 흰색 책장 그리고 42 개의 황금빛살이 펼쳐진 장면은 무척 장관이었으며 뛰어났다. 이 장면은 각국 관광객의 주목을 받았으며,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감상했다. 특히 대륙 관광객은 이처럼 성대한 장면에 큰 감동을 받았다.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아름다움을 세인에게 전하다.**

이번 인각 도형 디자인을 책임진 우칭상(吳淸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법륜(轉法輪)’이

책은 파룬궁수련생을 지도하는 주요 저작으로, 지금까지 근 40 개 언어 번역본이 나왔고, 영역본 ‘전법륜(轉法輪)’은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습니다.”, “‘전법륜(轉法輪)’의 내용은 아주 깊고, 인체, 생명에서 우주 등 각 방면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 진귀한 책을 세인과 함께 나누고 싶고, 인연 있는 사람이 이 책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우리 심신에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타이완 대형 인각을 20 여 년간 디자인한 그는 또 “나는 수련 후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건축디자인을 하고 있고 타이완 수련생은 많습니다. 매년 몇 개월의 시간으로 계획하고 수정하고 자리를 배치할 때 각종 날씨의 난관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매년 계속 견지합니다. 인각의 형식을 통해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이 세인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중국 관광객, “진선인(眞善忍)’은 사회의 안정에 중요합니다.”**

충칭(重慶)에서 온 엔지니어 천(陳) 씨는 타이완에 자유여행을 왔다. 그는 마침 타이베이 자유광장에서 파룬궁수련생의 대형 인각 활동을 보았다. 그는 “고향에는 친척과 선배도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 있고, 수련하여 몸도 좋고 장수합니다. 중국에서 많은 사람은 파룬궁이 중공의 선전처럼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진선인(眞善忍)’이 세 글자는 사회 안정에 아주 중요합니다. 중공은 이렇게 선량한 단체를 탄압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천 씨는 경찰 4~5명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고 감동하며 “타이완 경찰은 옆에서 질서유지에 협조하여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한 단체가 이런 대형 활동을 하면 (뒷면에 계속)

## 후신(胡欣)의 죽음이 주는 경고

[밍후이왕] 2018년 11월 6일 ‘인민일보’ 아래의 ‘신문전선’ 잡지사 원 편집장인 후신이 신문사 36호 층집의 19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신은 생전 우울증이 있었다고 한다.

후신은 북경대학 철학과 졸업생이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인민일보’ 이론부 편집과 부무위원직을 맡았다. 동시에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인민논단’ 잡지 편집장으로 있었고, 2009년에는 ‘신문전선’ 잡지사에 돌아와 편집장으로 있었다. ‘인민논단’과 ‘신문전선’의 상급은 모두 ‘인민일보’다.

### 당의 매체는 날자 만 정말이다

후신이 ‘인민일보’ 이론부에 있는 동안 여러 편의 ‘무게 있는 문장’ 연구와 습작과 편집에 참여했다. 그는 ‘런리쉬안’과 ‘런중핑’ 창작팀 성원이었다. ‘런리쉬안’과 ‘런중핑’은 ‘인민일보’가 전국의 여론을 이끌고 온 국민에게 거짓말을 주입해 세뇌하는 집단 필명이다. ‘인민일보’의 한 전 편집인은 ‘인민일보’는 날자 만 정말이고 기타는 모두 가짜라고 말했다. 이 말은 대륙민중에게 광범하게 전해지고 있다.

‘인민일보’ 아래의 ‘인민논단’에서 부 편집장을 했던 추밍웨이(邱明伟) 선생은 한 가지 사실을 폭로했다. “기자과 편집은 왕왕 조작을 강요당한다. 조작한 기자의 말에 의하면 ‘조작하지 않으면 밥통을 잃는다.’고 했다.”

**수련자를 박해 한 자는 천벌을 면할 수 없다**

1997년 7월 장쩌민은 파룬궁수련생의 인수가 공산당원 수를 초과하자 소인배의 질투가 발동해 파룬궁 ‘진선인(真善忍)’ 원칙이 중공의 의식상태와 상반된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전면 탄압을 명령했다.

불법적인 탄압이 시작된 첫 달 ‘인민일보’는 파룬궁을 비방하는 글을 347편을 기재했는데 평균 하루에 11편을 초과한다. 2001년 1월 23일, 중공이 획책한 ‘텐안먼 분신자살 조작극’이 발생한 2시간 후 신화사는 전 세계에 향해 영어뉴스를 발표했다. 똑같이 ‘인민일보’도 분신자살 사건을 앞장서서 띄웠다. 국제매체와 국제사회는 허점투성인 이번 중공의 ‘텐안먼 분신자살’ 자작극을 파룬궁을 모함하는 사기극이라고 모두 인정했다.

‘인민일보’ 등 관영매체의 요언 조작과 비방에 따라 중공의 공안 검찰 법원 각급 기구는 거리낌 없이 파룬궁을 탄압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19년 동안 적어도 4258명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로 목숨을 잃었고, 헤아릴 수 없는 파룬궁수련생이 납치, 판결, 고문당하고, 심지어 생체 장기적출 당했다.

후신이 ‘인민논단’ 편집장으로 있는 동안 ‘인민논단’ 잡지에 파룬궁을 비방하는 거짓선전을 기재했다. 편집장인 후신은 이런 거짓선전에 대해 주요 책임이 있다.

밍후이왕에 발표된 ‘파룬궁을 박해한 선전부문의 관료 100명 악보



■ 위 사진은 중공이 자작한 ‘텐안먼 분신자살 조작극’의 녹화 영상이다.

취발유가 연소할 때 화염의 온도는 섭씨 500도가 넘을 것인데, 이런 고온 속에서 왕진둥은 꿈쩍없이 앉아 있을 수 있었고,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았다. 경찰은 소방 담요를 들고 옆에서 기다리다가 왕진둥이 카메라를 향해 구호를 모두 외친 후에야 소방 담요를 그에게 덮었다. 이것이 연극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파룬궁 서적에는 살생과 자살은 모두 죄가 있다고 명확하게 제기했다. 진정한 수련인은 절대로 살생 혹은 자살, 분신자살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중공은 박해 초기부터 파룬궁 서적을 대량적으로 소각하고, 사람들이 사실진상을 아는 것이 두려워 인터넷에서 일체 파룬궁과 관련된 정면 정보를 봉쇄했다.



발다’는 문장에서 100여 명이 매체를 이용해 파룬궁을 모함해 악보 받은 실례를 폭로했다. 그 중 자살식의 보응이 심어 건이다.

후신의 죽음도 역시 그런 아직도 중공을 따라 착한 사람을 박해하고, 흑백을 전도하고, 가짜를 만들어 요언을 조작한 언론인들에게 마땅히 낭떠러지에 이르러 말고삐를 잡아 채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앞면의 계속) 공안이 전체를 동원해 경계하거나 심지어 쫓아냅니다. 완전히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중국 푸젠(福州)에서 온 린(林) 씨는 마침 타이완의 일주일간의 선거 기간에 와서 타이완의 민주 자유 사회 분위기를 목격했으며, 자유광장에서 파룬궁수련생의 활

동을 보고 더욱 감동했다. 린 씨는 “타이완은 정말로 민주 자유의 지역입니다! 중공 일당독재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 단체가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민의 생존 공간은 모두 중공의 제한을 받습니다.”라고 말했다.

파룬궁(法輪功)은 또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 하며, 전 세계에

보급되었다. 지금까지 이미 세계 100여 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지고 1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파룬궁 수련을 통해 신심의 건강을 얻었다. 하지만 신앙이 자유로 되지 못한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1999년 7월 20일 파룬궁박해를 실시해서부터 지금까지 19년이 지속되고 있다. ◇

## 하나의 작은 선행이 온 가족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다

[밍후이왕] 우리 집은 세 식구이다. 나와 아내는 같은 사기업에서 일을 했다. 나는 종견 간부이고 아내는 총지배인의 보조였다. 우리의 일은 다 순조로웠고 아들의 학교 성적도 괜찮았다. 온 가족은 건강하고 화목했으며 화기애애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 2014년 초 여름 고등학교 3학년을 다니는 아들이 대학시험을 앞두고 나와 아내가 갑자기 회사 사장의 탄압을 받았다. 아내는 강등되고 나도 부서가 바뀌고 강등되었다.

### 아내의 업무가 뛰어나 질투 당해 탄압받다

원인은 아내의 업무가 뛰어나 아내가 관리하는 그 구역의 몇 개 성(省)의 매출은 해마다 다른 구역의 두 배 이상이었기에 동료들이 질투를 해 이사장 앞에서 아내의 결점을 일러바쳤다. 아내는 기업에 공헌이 크다고 여겨 이사장 앞에서 아부하지 않고 심지어 바른말을 해 이사장은 항상 마음에 두었다.

2014년 초 우리 회사 재무부에서 장부를 감사했는데 아내가 회사 요구대로 엄격하게 대금을 치르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다른 회사에서도 어떤 땐 이렇게 함.) 이사장은 사소한 일을 크게 확대하여 아내에게 원칙적인 착오를 범했다고 승인하고 반성문을 쓰라고 억압했다. (목적은 아내를 굴복시키기 위한 것임.) 아내는 실수는 했지만 원칙 문제라고는 승인하지 않았다. 이사장은 화가나 아내의 직무, 월급을 낮추었다. 이사장은 무고한 나도 함께 징벌했다. 먼저 나를 중요 부서에서 전출시키고 이어서 직급과 월급을 낮추어 의기소침해지게 만들었다.

나와 아내는 갑자기 이런 부당함을 감당할 수 없어 아내는 안절부절하며 마음을 어기고 반성문을 쓰자니 도저히 쓰기 싫었다.



쓰지 않으면 이사장은 계단식으로 타격을 주면서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 직장을 옮기자니 어디로 가야 할지 자신이 없었다. 당시 아들의 대학시험은 초읽기에 들어가 우리는 아들이 정력을 집중해 대학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내색하지 않고 참아야 했다.

### 선님이 나와 선행하다

그 기간 나는 여러 번 외지의 매형과 통화를 했다. 매형은 현지한개 기층단위의 책임자다. 그는 원래 약골이었고 여러 가지 고질병이 있었는데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 후 근 20년 병에 걸리지 않았다. 대법을 배워 그는 너그러워지고 평온했으며 지혜가 열렸다. 매번 매형과 통화하면 계발을 받았다. 매형은 나에게 이사장이 이전에 우리에게 잘해 준 것을 많이 생각하고 회사에 남든 떠나든 모두 원망하지 말고 마음을 바로 잡으면 일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유효한 방법은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眞善忍好: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면 신불(神佛)의 보호를 받아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내가 매형의 말대로 외웠더니 마음이 많이 활기차고 그렇게 걱정 되지도 않았다.

그 후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점심, 나는 우리 아파트 단지 내 눈에 띄는 삼거리에 만화게시

판이 세워진 것을 발견했다. 아래에는 글이 쓰여 있었는데 모두 파룬따파를 비방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대법이 매우 좋고 대법 제자는 아주 선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매우 괴로웠다. 흑백을 전도하고 증오를 선동한 게시물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보고 잘못 인식하여 우주 대법을 적대시하면 그들에게 재난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저녁에 사람이 없을 때 그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나쁜 것을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저녁에 이것을 제거하기로 정했다. 당일 오후 날씨가 흐려, 비가 좀 오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녁때부터 정말 비가 내렸다. 비는 적지 않게 왔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자 나는 우산을 들고 삼거리 입구의 게시판 옆에 가 주위를 둘러보고 사람이 없기에 재빨리 게시판의 그림을 찢어내어 그것을 길가의 쓰레기통에 버렸다.

입구 게시판의 만화가 보이지 않았는데도 며칠째 의논하는 사람도 없었다. 사후 내가 이 일을 매형에게 알려주었더니 매형은 나 때문에 기쁘다며 나를 축복해주었다. “너의 집에 꼭 기쁜 일이 있을 거야.”

### 운이 트다

이어서 정황은 과연 매형이 말한 대로 한 달 후 우리 집은 운이 트였다.

우선 아들이 대학시험 점수가 610점이 넘어 소원대로 베이징의 명문대학에 붙었다! 지금 순조롭게 졸업하고 외국 한 명문학교의 입학통지서를 받고 해외에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또 아내는 계속 이사장과 대치하기 싫어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을 업게 친구에게 말했는데 일주일 후 친구가 같은 업종의 한 상장회사에서 아내의 ‘입사를 승낙했다.’고 알려주었다. 이 회사는 인재를 갈구하여 총경리가 직접 비행기(뒷면에 계속)

## 김순녀, 전기곤봉 충격, 찬물을 끼얹고 전기곤봉으로 충격, 팬티로 입을 틀어막고, 고무 쇠 방망이로 때리기, 일주일 엉덩이를 쳐들기 등 박해를 당하다

2002년 4월 6일, 34세의 푸순(抚顺)시 조선족 파룬궁수련생 김순녀(金順女)는 제5차로 납치당했으며 2002년 11월에 억울하게 13년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03년 4월 8일에 랴오닝(辽宁)여자감옥에 감금돼 박해 당했다.

막 투옥 됐을 때 김순녀는 감옥 경찰 귀구이제(郭桂婕)한테 사무실로 끌려가 전기곤봉 충격을 당했으며, 잇따라 또 상의를 벗기고, 머리로부터 아래로 찬물을 끼얹고 또다시 전기곤봉으로 충격을 가했다. 전기곤봉의 배터리에 다시 충전하는 동안에는 김순녀를 문 밖으로 끌고 나가 허리를 굽히고 궁둥이를 하늘을 향해 쳐들게 했으며, 충전이 다되면 또 다시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전기곤봉으로 충격을 가했다. 김순녀는 2시간 이상 고문을 당해 입은 부어 물집이 생겨 몇 달이 지나도 입을 다물 수 없었다.

2004년 3월 감옥은 소위 '전향율'을 제고하기 위해 각 감구구역의 파룬궁수련생에게 더 심한 박해를 가했다. 어느 하루 오후에 사악한 경찰 구야싱(谷亚星)은 각 소대장 회의를 열고 범인에게 '바오자(包夹-파룬궁수련생을 밀착감시)' 임무를 배치하고, 전향하지 않



■ 고문 연시: 전기곤봉으로 충격



■ 고문 연시: 혹독하게 구타하기

는 파룬궁수련생은 잔혹하게 때리라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매 죄개들에게 라면 두 봉지를 주겠다고 했다. 저녁에 하루 일이 끝난 후 죄개들은 김순녀와 고리만 등 수련생을 활동실로 불러갔다. 죄개들은 김순녀의 팬티를 벗겨 김순녀의 입을 틀어막은 후 땅바닥에 엎드려 놓고 호되게 구타하면서 '전향'하라고 강요했다.

감옥규칙을 외우라고 했으나 김순녀가 외우지 않자 사악한 귀구이제는 죄개에게 더 호되게 때리라고 했다. 죄개들은 옷걸이로 김순녀의 등을 치고, 고무방망이로 모든 파룬궁수련생을 때렸다.

김순녀는 맞아서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등이 검푸르게 됐다. 김순녀는 침대에 누울 수 없어 엎드려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당번을 서는 멩(孟)대장이 김순녀에게 감옥규칙을 외우라고 했다. 김순녀가 외우지 않자 벌을 주었는데 허리를 굽혀 머리를 아래로 드리우게 하고, 팔은 곳곳이 땅을 짚고, 엉덩이는 하늘을 향하게 하고 감옥규칙을 외게 했다. 김순녀는 구타를 당해 땀이 줄줄 흐르고, 옷이 흠뻑 젖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속 일주일 넘게 김순녀는 얼굴과 다리가 부어나도록 잔혹하게 구타당했다.

2013년 전후로 참혹한 박해를 당해 김순녀는 신장염, 고혈압, 심장병이 발생 했다.

2015년 4월 5일, 김순녀는 억울한 감옥살이가 만기 돼 출옥했다. ◇

(앞면의 계속) 를 타고 우리 시에 와서 아내를 면접하고 돌아가 이사장에게 보고했다. 이 회사는 아내를 회사 부 총지배인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판매 업무를 관리하게 했다. 연봉도 배로 늘었다. 아내가 취임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회사의 판매액은 크게 증가하여 이 회사는 사람을 제대로 구했다고 기뻐하며 아내의 봉급을 더 올려주고 승진도 시켜주었다.

아내가 직장을 옮긴 후 보름 지났어도 나는 여전히 전 직장에 출근했다. 어느 날 나는 한 동창생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사기업의 이사장이었다. 해마다 몇 억의 생산액을 올렸다. 동창생은 나와 만나자고 약속하고 나를 그 회사의 부 총지배인으로 청하고 연봉도 톡톡히 주겠다고 했다. 새 직장에 간 후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나의 인맥을 통해 회사에 몇 건의 일을 성사

시켜주었다. 모두 과거 이전의 회사에서 이루고 싶었지만 성사하지 못한 일이었다. 이사장은 나에게 특별 상여금을 주고 나의 봉급도 올려주었다.

2014년 말부터 지금까지 우리 집 일은 모두 순조로워 정말 '선행을 하여 덕을 쌓아 전화위복하고 운이 트여 일마다 순조로워진 것이다.' 하나의 작은 선행이 우리 가정에 연이은 복을 주었다! 나는 대법의 신기함에 감탄했고 대법 사부님의 자비로움에 감격하여 이 문장을 쓴 것이다. 이 문장을 본 친구들이 나의 한마디 말을 듣기 바란다. 대법을 잘 대하면 반드시 큰 복을 받을 것이다. 행복과 행운이 영원히 군(君)을 동반하기 바란다! ◇

